

# 해남군 '관광객 1000만 시대' 성큼

지난해 984만 8576만명 찾아

유명 관광지·대표 음식 인기↑

숙박자 늘어 '체류형 관광' 전환

해남군이 지난해 해남을 찾은 관광객이 984만 8576만명을 기록하며 '연간 관광객 1000만명'이라는 위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4년 923만 7014명 대비 무려 61만 1562명(6.6%) 늘어난 수치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해남 관광의 가파른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랩'에 따르면 것으로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방문자 수와 체류 기간,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 신용카드 기반 관광소비액 등을 바탕으로 집계됐다.

데이터랩의 지역관광진단 결과 방문자들의 평균 체류시간은 1447분으로 전국 기초자치체 평균 1021분에 비해 길고 1박 이상 숙박자도 12.5%로 전국기초자치체 평균 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은 48만 6531건으로 음식 10만 5367건, 문화관광 10만 1274건, 기타관광 7만 6430건 등이 주요 검색 대상으로 대행사와 땅끝전망대,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 인기 관광지와 대표 음식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를 이뤘다.



해남군이 지난해 해남을 찾은 관광객이 984만 8576만명을 기록하며 연간 관광객 1000만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해남의 대표축제인 미남축제 모습.

〈해남군 제공〉

특히 관광소비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인 관광소비 합계는 966억 3158만 4000원으로, 관광소비 또한 1000억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내관광 소비가 4.9%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12.2% 증가한 수치로 해남이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행사를 비롯해 우수영 국민관광지, 땅끝 관광지, 달마고도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공룡대축제, 명

랑대축제, 해남 미남축제 등 사계절 축제 개최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관광 빅데이터는 해남을 찾는 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방문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이라며 "985만명이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1000만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연 55만 속 김밥김 가공

### 해수부 건립 지원사업 선정

신안군이 해양수산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 원 규모 수산물 유통 거점 시설을 조성한다.

신안 FPC는 압해읍 일원에 김밥김 가공시설과 마른김 전용 냉동보관창고 등을 갖춘 산지 유통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신안군 핵심 수산물인 김 산업을 중심으로 원물의 안정적 수급과 마른김 배송 기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가공 기반 구축, 물김 폐기 저감, 어업인 소득 안정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준 물량 위주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가공·유



신안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조감도.

통·수출이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 FPC는 연간 약 55만 속(100장) 규모 김밥김 가공이 가능하며 약 200만 속 이상 마른김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갖출 계획이다.

센터는 지역 내 영세 마른김 가공업체에도 공동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가공·유통·품질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 지역 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 선정은 신안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산지 중심 유통 혁신을 통해 어업인과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군, 주민 숙원 244건 67억원 조기 발주

### 농번기 전 공사 마무리

진도군이 총 67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 244건을 오는 2월 안에 조기 발주해 농번기 전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8월 수요조사와 11월 현장조사·실시설계를 병행해 현재 149건을 발주했으며

남은 95건도 2월 안에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앞당겨 추진 중이다. 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농로 개설·포장, 배수로·개천 정비 등 생활과 영농 활동에 직결되는 공사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군은 올해 2월 조기 발주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주민숙원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11월부터는 건설과가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를 병행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방문해 이장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를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거주지서 안정적 돌봄 '목포 돌봄 365' 시행 청년센터 3월 개관·산단 문화센터 7월 운영

### 목포시 새해 달리는 시책 공개

목포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시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11건과 기존 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32건 등 총 43개 정책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목포형 통합돌봄 사업인 '목포 돌봄 365'를 새롭게 시행한다.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연중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임신부 백일회 예방접종 등 생활 밀착형 건강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주요 복지 제도도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각각 2% 인상되고, 생계급여는 6.51%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이 8세에서

9세로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5% 인상된다.

일자리·경제·인구 분야에서는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공간과 지원이 강화된다. 목포청년센터 '누리'는 2026년 3월 개관해 취·창업 지원과 교육, 문화, 소통 기능을 결합한 청년 활동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삼진산업단지에 조성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6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작업복 세탁소와 피트니스실, 회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문화·교통 분야에서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이동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지원금이 인상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 확대와 함께 지원금액이 5만원 상향되고 영화 관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은 기존 정액권 혜택이 확대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환급 유형이 도입돼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영광군, 빈집 철거 사업 대행…주민 부담 던다

### 용역 비용·행정 절차 원스톱 지원

영광군이 빈집철거사업 '해체계획서 작성 대행'으로 군민 부담을 던다.

영광군은 빈집철거사업으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군민이 겪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 때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군에서 직접 작성 대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시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 군민의 경우 전문 용역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관련 행정 절차 안내까지

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해 군민의 부담을 실질적

으로 줄여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부담으로 정비를 미뤄왔던 빙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지된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빙집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 후 철거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달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061-350-4697)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과 절차가 군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라며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해체 절감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군민 1인당 약 2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

그린알로에